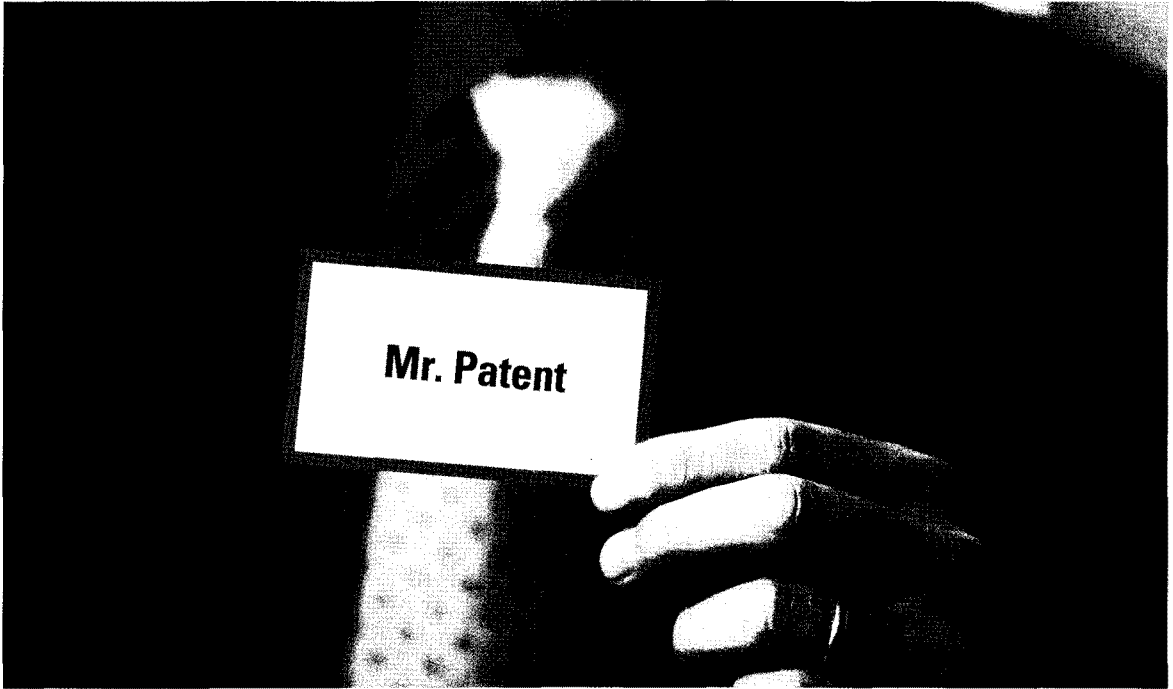


특허괴물의 유형과 이를 보는 시각

이철희 |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애초부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 이러한 기업은 제조보다는 특허에만 관심이 있다. 이들은 특허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어 권리행사를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바로 이 유형이다. Intellectual Ventures (IV), Acacia Research, Rembrandt 등이 이 범주로 분류되는데, Doug Lumish라는 변리사가 True Blue Troll라고 명명했다. 이 중 3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IV의 경우 스스로 특허를 생산하여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Troll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체 생산하는 특허는 비

율면에서 소수이다. 또 특허소송은 자제한다고 하나 최근에는 다량의 특허를 번들로 묶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로 유명한 Texas Instruments(TI)사는 특허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경쟁력을 잃고 쇠락해 가던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우수한 전자업체들과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특허소송을 걸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기사회생한다. 이 분쟁의 결과로 DRAM 업체들로부터 TI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15억 불이 넘는다. 지금은 제조보다는 특허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원래는 제조업체였으나 제조를 포기하거나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특허를 주 수익원

로 하는 이런 회사를 Incidental Troll이라 부른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시스벨(Sisvel S.p.A.)이라는 회사도 이 유형 중 하나인데, 애초에 TV를 제조하다가 당시 이탈리아 최대의 TV 메이커였던 Indesit사의 특허를 인수한다. 특허권을 행사하여 수입을 거둔 후 경매에서 특허를 추가 입수하는 한편 급기야는 Philips, France Télécom, TDF and IRT 등으로부터 MPEG Audio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임대받아 이를 행사하기에 이른다.

놀랍겠지만 대학이나 연구소도 특허괴물로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인 특허괴물의 하나인 MPEG-2의 경우 컬럼비아대학이 29개의 특허권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은 이 외에도, ATSC 특허풀에 3개의 특허를, AVC/H.264 특허풀에 9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07년 한 해에만 1억 3,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거둬들였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Remicade®의 기술을 라이선싱한 바 있는 뉴욕 대학은 같은 해 7억 9천만 달러를 로열티로 벌었다. 연구의 성과물로서 특허를 취득하고 이에 기반하여 로열티를 거두는 이런 경우를 Lumish 변리사는 Thinking Person's Troll이라고 분류한다.

한편 Brokerage Troll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특허권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특허중개업자와 같은 유형이다. IP Value가 이에 속한다. 어떤 기업은 이런 유형의 회사와 제휴하거나 이런 회사를 일부러 설립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의 경우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특허로 남을 공격할 때 이름없는 회사를 내세워 조종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런 경우 외부인이 관계를 눈치챌 수 없도록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특허 매입 시 모회사 이름으로 할 경우 매도자가 상대방이 거대 기업인 것을 알고는 값을 터무니없이 불러 매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roll 자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특허괴물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뜬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IV와 같은 특허괴물로부터 방어해 주겠다는 Defense Patent Aggregation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그것인데, RPX Corporation이란 회사는 펀드를 모으고 특허를 확보하여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겠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이 회사의 설립자는 전직 IV 직원이다.

유형이야 어찌됐든 오죽 미웠으면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나쁜 놈으로 치부하고 상종을 안하면 그만인데 그게 잘 안되니 문제인 모양이다. 삼성전자는 IV가 펀드 모집 1차 라운딩에 가입하라고 할 때 거부했다. 엄청난 물량을 제조를 하는 삼성전자는 지불하는 로열티도 엄청나다. 따라서 이 회사는 특허와 로열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봉이 김선달 같이 느껴지는 IV의 펀드 가입이 선뜻 내키지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펀드 가입 제의가 왔을 때는 첫번째보다 액수가 너무 커져서 1차 때 생각이 나서 결국 가입을 못했다고 한다. 난감해 하던 차에 결국은 특허방어펀드를 모집하는 RPX의 펀드에 가입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열심히 제조하여 돈을 버는 기업은 선이고 이들로부터 로열티를 뜯어가는(?) 기업은 악일까. 연간 15억 달러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삼성전자는 착한 기업이고 한국에서만 3조 원 이상을 로열티로 걷어간 쉐컴은 악덕 기업인가. 사실 삼성전자도 특허매입도 하고 로열티도 거두고 있지 않은가. 워낙 제조물량이 크다 보니 지불하는 게 더 많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MPEG 특허풀에 가입하여 로열티 수입을 거두고 있고 필요하면 공격도 한다. 한편 특허괴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RPX는 과연 좋은 놈일까 아니면 더 나쁜 놈일까. 나아가 쉐컴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두는 ETRI나 중소기업 네오엠텔은 치사한 놈일까 구세주일까. **TTA**